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현 교육풍토에서 교사가 할 일은

군사부일제. 요즘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부모의 권위도 함께, 때문에 추락 면에서만 보면 군사부일제가 맞는지도 모른다.

반면에 학생들의 인권은 상당히 신장된 것 같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신장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청소년 시기는 아직 인격의 미완성 단계다.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때문이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가위질을 해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올바른 도덕과 양심, 종교성을 심어줘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다.

즉, 올바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올바른 인간상을 형성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 래야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는 놀지도 못하게 한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는다. 공동생활을 해치는 일을 해도 모른 채 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동승해 운전하면서도 교통신호를 어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약조건 속에서 아이들이 그대로 학습한다.

특히 교사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상당수는 자녀들 앞에서 교사를 무시하는 소리가 있다.

심지어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학교에까지 쫓아가서 폭행을 해대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자녀를 비롯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폭언까지 곁들여가면서. 이 무슨 망나니 짓거리들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올바른 인격이 함양되었는가. 그러나 학생들도 교사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심한 경우는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성폭력행위도 일어난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다. 마치 시정잡배들의 소굴 같다. 신성한 교정이,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수많은 부정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현장이다.

이의 근본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가정교육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학교교육은 가정교육의 보완일 뿐이다. 그리고 발전을 기대하는 곳이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교사에게 적절한 체벌권도 줄 필요가 있다. 교육만을 위한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학교 교육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력과 욕설을 당하고 인터넷 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그 누가 소신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혹자들은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등 비행이 저질러지면 교사를 탓하는 경우가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과 같은 교육풍토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학교교육이 죽으면 국가의 장래도 어두워진다. 결국 이 나라를 암흑의 천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때문에 교권을 확립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진정한 교육자적 정신을 가진 교사를 위해서.

社 說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해야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칫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보수가 기본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들은 항상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휴일과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한다. 언제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런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직급이 올라가도 보수 처우가 낮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과 소방관 계급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50년 전 만들어진 직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풀이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금심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 보수체계 합리화가 현장 공무원의 시기 진작,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신현주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본급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항상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휴일과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한다. 언제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런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직급이 올라가도 보수 처우가 낮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과 소방관 계급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50년 전 만들어진 직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풀이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금심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 보수체계 합리화가 현장 공무원의 시기 진작,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신현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확 달라진 '학교폭력예방법'

2019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다.

첫번째, 학교 자체해결제(2019년 9월 시행)가 시행된다.

대상은 2주 이상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및 그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된다.

둘째,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2020년 3월 시행)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기존 5~10명이던 것을 10~50명으로 위원 구성하게 되고 기존 학부모 위원 1/2이상이던 것을 1/3으로 한다.

셋째, 학교전담경찰관(SPO) - 수사부서간 정보 공유 다양해 진다.

기본 정보공유 지침(2018.4.25.)을 개선하여 기존 정보 대상이던 범죠평에서 범죠평·축법·우범소년으로 통보대상을 확대하고 사건접수·입건·송치 시 등으로 통보시점이 단일화 되지 않던 것을 접수 시로 통보 시점을 단일화 하게 된다.

넷째, 선도프로그램 이수 소년범·비행청소년을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한다.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보호 활

등을 위해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 실시하여 경찰·지자체·교육기관·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를 유지하여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게 된다.

확 달라진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숙지하여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

조현웅 / 순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